박보나U

EXHIBITION

2013 / 07 / 10

이주희

친구들



<2’33”> 피아노 퍼포먼스 2013_전시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피아니스트 한지은의 <엘리제를 위하여> 연주



양쯔강돌고래의 등은 깊은 회색의 푸르스름함을 띠었으며, 배는 흰색에 가까운 밝고 연약한 회색이었다. 낮은 등지느러미는 삼각형 모양이었으며, 가슴지느러미는 넓고, 끝이 둥글었다. 30~34개의 이빨을 가졌으며, 부리는 30cm 정도로, 마치 거수 경례를 하듯 위로 살짝 휘어져 있었다. 완전히 성장한 양쯔강돌고래 수컷은 약 2.3m 정도였고, 암컷은 2.5m 정도로 수컷보다 컸으며, 가장 큰 개체의 크기는 2.7m 정도였다. 또한, 이 작지 않은 돌고래의 평균 무게는 135~230kg 정도로, 실제로 봤을 때 상당한 물리적 존재감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어스름한 새벽에 양쯔강 강변에서 이 크고, 하얗고, 매끄러운 동물이 유유히 수영하는 것을 보는 느낌이 얼마나 경이로웠을지 잠깐 상상해 볼 수 있다. 양쯔강돌고래의 임신 기간은 10~11개월에 이르며, 한 번의 출산에서 한 마리의 새끼만 얻을 수 있고, 다음 임신은 출산 2년 후에나 가능했다. 새끼는 막 태어났을 때, 80~90cm 정도의 크기였고, 보통 8~20개월 동안 어미 돌고래의 보살핌을 받았다. 야생에서의 평균 수명은 24살 정도였다고 한다. 양쯔강돌고래는 위급한 상황에서 60km/h까지 속력을 낼 수 있었지만, 보통 10~15km/h 정도의 속도로 움직였다. 이는 양쯔강돌고래의 시력이 매우 나빠서, 주로 수중음파 탐지를 통해 이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로, 이 경이로운 동물은 아주 작고 희미한 눈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양쯔강돌고래의 멸종은 2006년 12월에 공식적으로 선언되었다. 2007년 8월 한 중국인이 양쯔강에서 수영을 하는 크고 하얀 동물을 촬영했다며 흥분되는 보고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양쯔강돌고래라는 확신을 줄만한 영상은 아니었다. 결국, 양쯔강돌고래는 1980년에 구조되었다가, 2002년에 우한수생생물 연구소 수조에서 죽은 '치치(Qi Qi)'라는 수컷 돌고래를 마지막으로,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검은 사각형> 7개의 포스터 2013

박보나